빙속 자존심 지킨 男팀추월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제2920호 www.metroseoul.co.kr

박소연 '평창 피겨퀸' 도전

피겨퀸 김연아 마지막 미션은 "웰컴 투 평창" 피겨 여왕 김연아(오른쪽)가 선수 [illegible] 무대를 조국의 올림픽 홍보로 장식했다. 23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갈라쇼에서 그는 공연 뒤 모든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링크 반대편으로 이동해 은반에 새겨진 '평창' 눈꽃 로고 위에 섰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은 김연아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암세포처럼 번진 '담합 불감증'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5 도 넘은 건설업계 담합

#서울시심 특별범죄수사본부는 3월 1군 건설업체 102개사 상부 및 실무자 [illegible]이 방수한 88건의 대형공사에 조직적으로 담합 입찰한 사실을 밝혀내고 (중략) 불구속 기소된 회사 대표는 ▲현대건설 이래준 사장 ▲대우건설 장영수 회장 ▲대림산업 이종국 사장 ▲현대산업개발 심현영 사장 등 11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6일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현대건설 전 사장과 서종욱 대우건설 전 사장에게 각각 집행유예 판정이 내려졌다. (중략) 이외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관계자 20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이 선고됐다.

대형 공사 수주 때마다 터지는 '입찰가 입맞춤'
'관행 넘어 전통' 업계 인식에 약한 징벌도 한몫

◆뿌리깊은 건설사 입찰담합의 공식

1996년 5월 4일과 2014년 2월 6일 각각 보도된 기사다. 약 18년간의 시차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 내용과 등장하는 건설사들이 꼭 닮아 있다. 수법도 여전하다.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가를 높이는 식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의 '담합'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하는 셈이다.

하지만 삼지가 굴으면 터지는 법. 올 들어 잇달아 건설사들의 담합이 이슈화되고 있다. 우선 1월 2일부터 21개 건설사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포스코건설에는 조사방해 행위까지 더해져 1억45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됐다.

이어 불과 열흘도 안 돼 1월 10일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7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힘입어 인천시도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과 관련해 손해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현재 공정위가 내사 중이거나 조사에 들어간 현장도 7~8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출혈 수주 목적기 위한 자선책"

건설사들은 담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발주 공사의 수익률이 높지 않고 공사기간도 촉박한 경우가 많아 미리 입을 맞춰야 불필 수주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공사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 차원에서 수익률은 낮아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간도 빠듯하게 주어지는 편이라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담합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어려움 호소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금 낭비, 엄연한 범죄 불구 솜방망이 처벌 여전

하지만 건설사들의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6년~2011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총 971곳, 부과 금액은 2조5332억원이다. 관련 매출 199조원에 견줘 1.3%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에서 턴키로 계약한 금액 역시 총 5조3000억원으로, 담합으로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과징금 부과액은 1115억원에 그쳐, 불법담합에 따른 손해보다 이익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이는 건설사들에게 담합을 하라고 정부가 나서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국회는 말로만 경제민주화, 공정한 거래를 외칠 게 아니라 담합을 방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옥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네 자매 '60년만의 수다꽃' 꿈만 같아

남북 2차 이산가족 상봉 감격의 순간들

23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88명이 남측 가족 357명을 만나는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6·25 전쟁 때 젖먹이였던 남궁봉자(61)씨는 단체 상봉행사에서 북쪽의 아버지 남궁렬(87)씨를 만나 60여 년 만의 꿈 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봉자씨는 "아버지가 전쟁통에 실종되셔서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아직 살아계셔서 고맙다"며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봉자씨의 딸 이은숙씨와 사위 최해인씨도 동행했다.

미국에서 거주하다 가족 상봉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김경숙(81)씨는 이날 오빠 전영의(84)씨를 만났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최정수씨는 언니 정애(80)씨와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남쪽의 동생 박금화(78)·주대(71)·금순(65)씨는 전쟁 전에 출가했다가 생사를 알지 못하던 큰언니 계화(82)씨를 만나 네 자매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상봉에 참가한 금옥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큰 언니만 전쟁통에 사라진 것을 평생의 한으로 생각하고 우셨다"며 "이제야 비로소 네 자매가 만나게 됐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2차 상봉에 나서는 남측 최고령자 이오순(94)씨는 북측 동생 조원계(83)씨와 감격스러운 포옹을 했다. 북측은 80대가 82명으로 권응렬·김휘영·박종섭씨 등 3명이 88세 최고령자로 기록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남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만남을 이어갔다.

상봉 이틀째인 24일에는 금강산호텔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9시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 6차례 11시간에 걸친 만남은 마감하게 된다.

/이선applied기자 mkim@metroseoul.co.kr

'그리움의 바다' 건넌 남궁렬·봉자씨 부녀 아버지의 얼굴도 사진 한 장의 얘기도 60년 세월은 다 삼켜버렸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2차 첫날인 23일 오후 금강산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남궁렬(87)씨가 젖먹이 때 헤어진 딸 남궁봉자씨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가운데는 남측 조카 남궁용씨 /연합뉴스

"기초연금 좀 들어봅시다" 휴일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에서 유재중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이목희 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미 키리졸브 연습 오늘 시작

한·미 양국은 24일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을 시작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지휘소훈련(CPX) 형식으로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된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독수리 연습은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명(해외 증원 1100명)으로 지난해 3500여명에 비해 1700명 정도 늘었다. /김희주기자

소득별 교육비 7배차

잘 살수록 고급 교육 혜택 '신분 대물림' 경향

지난해 고소득층이 교육비로 쓴 금액이 저소득층의 7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50만43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 7만6600원의 6.58배에 달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2분위 20만1800원 ▲3분위 25만8700원 ▲4분위 37만5700원 등으로 소득이 많은수록 교육비에 고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각각 784만6500원, 138만2600원이다. 두 집단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381만8100원, 125만8100원이다.

소비지출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씀씀이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교육(6.58배)이고 이어 ▲의류·신발(4.93배) ▲오락·문화(4.91배) ▲기타 상품·서비스(4.42배) ▲교통(4.4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4.2배) ▲음식·숙박(3.99배) 순이다.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이 큰 것에 대해 부유층 자제일수록 고급 교육을 받아 부모 신분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김다혜기자 ydh@

여생도 점수 깎기?

육사, 성적산출 방식 男에 유리하게 변경
일반학 낮추고 훈련·체육등 비중 높여

수석 졸업자인 여생도 대신 남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려다 '성차별 논란'에 휘싸인 공군사관학교에 이어 육군사관학교가 올해부터 재학생 성적산출 방식을 일반학의 비중을 낮추고 군사학 및 군사훈련, 체육, 훈육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육사는 일반학 146학점, 군사학·군사훈련 24학점, 체육 6학점, 훈육 20학점 등 총 196학점의 성적(A~D)을 가중치 없이 합산하는 '학점제' 방식으로 재학기간 성적을 산정했다.

그러나 육사는 2년 연속 여생도의 수석 졸업이 이어지자 분야별 가중치를 변경했다.

백분위 비율로 따져 일반학 성적의 비중은 74%에서 42%로 낮아진 반면, 군사학·군사훈련은 12%→25%, 체육은 3%→17%, 훈육은 10%→17%로 각각 성적 반영 비중이 높아졌다.

여생도는 일반학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남생도는 군사학·군사훈련과 체육의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바뀐 방식은 여생도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육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장교 교육성 강화를 위해 1년여의 연구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신체적 능력 측정은 남녀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평가 방식은 남녀생도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생도는 40개가 만점이라면 남생도는 70개가 만점으로 남녀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어 "올해 3학년이 되는 재학생의 경우 1~2학년 성적은 기존 방식이, 3~4학년 성적은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돼 졸업순위가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마스크 쓴 주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으로 예보된 23일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남산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서 유독물질 3만ℓ 유출…토양 오염

작업 중 온산항사거리 지하배관 파손 탓…해양오염 가능성도

22일 오후 2시 20분께 울산 온산공단 온산항사거리에서 지하 2m에 매설돼 있던 화학물질 이송 배관이 터져 자이렌 혼합물 3만ℓ가 유출돼 토양이 오염됐다.

자이렌은 마취증상과 급수장애를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주군은 고려아연이 회사의 스팀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설된 직경 20㎝의 자이렌 혼합물 이송 배관을 파손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자이렌 혼합물 배관은 액체화물 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에서 롯데케미칼까지 연결돼 있다.

사고가 나자 정일스톨트헤븐 등은 배관 연결부위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다. 유출된 자이렌 혼합물 가운데 2만5천ℓ는 인근 공장에서 진공흡입 차량으로 회수했다고 울산소방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회수하지 못한 혼합물이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사고 지점이 바다와 가까워 해양오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아연은 파손된 배관 교체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울주군은 자이렌이 유독성 물질인 만큼 오염된 토양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오염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려아연이 지하 배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땅을 파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울산 온산공단 온산항사거리에서 고려아연이 배관 설치 작업을 위해 땅을 굴착하다 매설된 유독성 화학물질인 자이렌 혼합물 배관을 파손시켜 자이렌이 땅위로 유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청년 인턴 330명 채용

부산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해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기업은 유능한 인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턴에게는 기업 환경과 근무조건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직률을 줄이는 한편 기업은 인턴을 통해 검증된 인재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신규채용직원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33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은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석달 동안 부산시로부터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후 인턴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100만원씩의 인건비를 6개월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50만원, 인턴에게는 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인턴과 기업은 지난해 부산시와 운영기관 협약을 체결한 부산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의 홈페이지에서 인턴신청서 또는 채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춰 사업위탁 운영기관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뉴시스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문 닫는다

22년만에…리모델링 통해 전시실 들어서

웨딩홀로 주로 사용하던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이 22년 만에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전시실이 들어선다.

부산문화회관은 임대기간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말 영빈관 측과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문화회관 측은 계약해지 의사를 최근 영빈관 측에 통보했다.

1992년 5월 문을 연 영빈관은 문화회관 관련 리셉션 등 회식 서비스업을 하다가 2년 전부터 예식업을 하고 있다.

영빈관 폐관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다.

부산시의회 박재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제228회 정례회에서 "문화회관 웨딩홀의 임대수입은 2012년 기준 총 수입의 4.2%에 불과해 수익 측면에서 큰 이득이 없고 문화공간의 이미지만 훼손하고 있다"며 전시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회관 측은 오는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 영빈관 자리에 지하에 있는 중전시실을 옮길 계획이다.

박 의원은 "문제를 제기할 당시 문화회관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벌인 결과 웨딩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영빈관을 폐관하고 전시공간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캠퍼스 이모저모

동주대 제37회 입학식 개최 동주대(총장 김영탁)는 지난 21일 오후 체육관 대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 신입생 1000여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경남정보대 1학기 시무식·연수 경남정보대학교(총장 추만석)는 지난 21일 오전 교내 미래관 글로벌컨벤션홀에서 교수와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학기 시무식 및 교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부산과기대 가족회사 워크숍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기선)는 지난 19일 오후 6시 농심호텔에서 '가족회사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이 추진 중인 R&D사업의 성과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경대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대학극장에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사 2346명, 석사 446명, 박사 82명 등 2834명이 학위를 받았다.

"고용안정 부정수급 내달까지 자진신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안정 부정수급이란 근로자 허위취득신고, 허위급여지급, 휴업 미실시, 육아휴직 미실시 등 고용안정사업 지원금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2~5배),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청은 금번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서면,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고용센터(051-860-2011~6)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하균기자

日 의료관광 투어단 동의대한방병원 방문 지난 21일 20여명의 일본 언론과 의료, 여행사 관계자들이 의료관광과 관련해 동의대학교한방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병실 한방조제실 등과 한방류마티스센터와 통합 암진단장비인 PET-CT실을 둘러보고, 한방 피부미용 관리와 함께 안면마비 환자를 한의학 교수가 직접 침시술하는 치료모습도 함께 참관했다.

해빙기 취약지 1756곳 점검

부산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6개 구·군에 산재한 재난취약지 1756곳이다. 이 가운데 공사장, 축대, 절개지 등 연쇄 피해위험시설 215곳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벌인다.

동부산 관광단지 남북측 연결도로, 도시철도 다대구간 등의 대형 공사장과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용두산공원 절개지 등 35곳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면 금강제화 ㎡당 2350만원 가장 비싸

2014년 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보다 5.16% 상승

부산지역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5.16% 상승(전국 3.64%↑)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접한 경남(6.84%↑), 울산(9.71%↑)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가는 전국의 315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50만 필지를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평가해 2월 21일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표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내용이다.

부산에서는 관내 16개 구·군 지역에 위치해 있는 표준지 18,312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5.16%로서 전년도 3.56% 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지역간 가격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지역인 해운대구(11.77%↑), 기장군(5.36%↑), 남구(5.46%↑)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개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남구에 혁신도시 조성 사업 등의 요인으로 다소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역세권 지역인 동래구(5.37%↑), 금정구(5.39%↑), 사상구(4.76%↑)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원도심권(동구 1.11%↑, 서구 1.98%↑, 중구 2.38%↑)은 성숙된 상권지의 가격현실화, 주거기반시설의 낙후 등 부동산경기상승의 제한요인으로 소폭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장소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2350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의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서 ㎡당 58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격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않지만 대신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가 운영(1661-7821)되고 있다.

오는 3월 21일까지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는 통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게 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가격은 오는 4월 14일 공시할 예정이다.

/황학균기자 jhk@metroseoul.co.kr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사망 학생 9명에 명예졸업장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희생된 부산외대 학생들의 합동영결식이 21일 부산외대 체육관에서 학교장으로 엄수됐다. 정해린 부산외대 총장이 9명의 희생자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장 CCTV 관제센터 개소

부산 기장군은 각종 범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장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3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25일 기관장 및 지역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보호,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산불감시 등 기관 부서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공공용 CCTV 450여대를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장군은 지난 2012년 10월 통합관제센터 구축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해 안전행정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총사업비 11억4600만원을 지원받아 군 청사 지하1층에 관제실 등을 갖춘 총265.06㎡(약80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준공됐다.

분야별 전문 관제인력과 감독경찰관이 상시 배치되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영상관제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리조트 사고' 심리지원센터 운영

부산시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정신적 충격,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부상자 등 관련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신입생 환영회 행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사고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뿐 아니라 사고를 직접 목격한 학생, 교우 등 많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대학교 백병원(부산진구 개금동) 8층 의과대학내에 운영 중인 부산시 재난심리지원센터(센터장 배정이)에서는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학생 및 가족 등을 위해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병원방문 및 전화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증격이 심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난경험자들이 더 큰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 목적을 두고 심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학균기자

온 종합병원-메리놀병원 진료협력 업무협약 부산 온 종합병원(병원장 정근·왼쪽 두번째)은 지난 20일 오후 3층 대회의실에서 양측 병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료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온 종합병원은 오는 3월 '암스톱 암치료센터'를 개소하기에 앞서 지역 암 환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토음식 요리 최강자 누굴까

내달 27일 경연대회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맛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내달 27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2014 부산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경연대회의 주제는 '부산 및 기장 2인 상차림'이다.

지금까지 발굴·개발된 부산 향토음식을 활용해 음식점에서 바로 출시 가능한 메뉴개발을 목표로 2인 기준 3만원(재료비 50%) 정도의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조리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7종 이내의 상차림 형태로 출품하면 된다.

이 대회는 대상 150만원 등 총 상금 400만원을 걸고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2인 1조로 대한민국 남·여, 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자가 20팀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0팀이 최종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nongup.busan.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59chop@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에 부산향토음식의 가치와 보급가능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낡으는 양탄자… 몇 명 탄거지? 2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날으는 양탄자' 대회 참가자들이 양탄자가 걸린 썰매를 탄 채 자가용 틀속으로 끌어지고 있다. /AP 뉴시스

우크라이나 '분단 위기'

친러 대통령 vs 친서방 의회 서로 "합법" 충돌
야권 최대 지도자 티모셴코 석방돼 혼란 가중

우크라이나 정국이 분단위기로 치닫고 있다.

동부지역 기반인 친러 성향의 대통령과 서부지역 위주의 친서방 성향 의회가 서로 합법 권력 기구를 자처하는 이중권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권 쿠데타'와 '대통령 사퇴'를 주장이 난무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야당이 주도하는 최고 라다(의회)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히면서 5월 25일을 조기 대선일로 정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하루 전 수도 키예프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동부 도시 하리코프로 날아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권력 장악 시도를 국가 전복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그동안 직권 남용죄로 수감생활을 해오던 최대 야권 지도자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가 의회 결의로 교도소에서 풀려나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정국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2004년 말 우크라이나의 민주시민혁명인 오렌지 혁명을 주도했던 티모셴코는 2010년 초 대선에 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3% 대의 근소한 차이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총리 재직 시절인 2009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10년간 가스 수입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 러시아 측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 2011년 10월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왔다.

한편 키예프 시내에선 야권 시위대가 주요 관청을 장악하고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은 시내 그루셰프스키 거리의 대통령 행정실은 물론 키예프 외곽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관저도 야권의 통제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오렌지 공주" 못알아보겠네
율리아 티모셴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석방되자마자 수도 키예프의 독립광장을 찾아 5만 여명의 시위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나루히토 日왕세자 '헌법 수호' 강조

아베 총리에 반대 입장

나루히토 일본 황세자가 헌법 준수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23일 54세 생일을 맞이한 나루히토 황세자는 현지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전후 일본헌법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매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천황(일왕)은 헌법에 정해진 국사에 관한 행위만 하며 국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그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규정을 전제한 뒤 이뤄졌다.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나루히토 왕세자의 발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과 뚜렷한 대비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일본 왕실이 헌법 수호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12월 생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사회의 토대로서 헌법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는 "전후에 만들어진 평화 헌법은 오늘날 일본을 일궈낸 바탕"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옐런 의장 '신참의 굴욕'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행사장에서 굴욕을 당했다. 보안요원이 옐런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 23일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전날 행사장 내 식당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보안요원이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지갑을 꺼내 보여준 뒤 식당으로 들어갔다.

/조선미기자

metro Mexico

NHN 라인' 멕시코서 열풍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내놓은 무료 문자 애플리케이션(앱)인 라인(LINE)이 멕시코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라인 이용자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3억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멕시코 이용자 수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라인은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이모티콘과 다른 회사들과의 연대로 세계 10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일본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마리엘라 아길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e 15 millones
eros en México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제법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이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나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팽팽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율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흐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코스닥
1957.88 (+27.25)	528.51 (+2.02)

금리	환율
2.82 (+0.02)	1071.50 (-3.30)

뉴스 & 뉴스

1월 주택건설 인·허가 증가

● 지난달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국적으로 2만4602가구에 달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11월 한달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내내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새해 들어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096가구로 재개발 물량이 늘면서 15.8%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1만2506가구로 경남 지역의 실적 감소 탓에 7.4% 줄어들었다.

카드발급시 핵심설명서 의무

●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1장짜리 핵심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 등에 따라 카드 이용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로또복권 제586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7	12	15	21	34	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778,354,344
2등	5개숫자+2등 보너스 숫자	51,546,503
3등	5개 숫자 일치	1,510,23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11 3
부산광고문의 051)959 2100
독자센터 02)721 9911
199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6

카카오톡 브랜드 가치, 네이버 제쳤다

카카오톡이 1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켰던 네이버를 제치고 인터넷 업종에서 브랜드 가치 최정상을 차지했다.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탁은 2월 브랜드가치평가지수(BSTI)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업종 부문에서 카카오톡이 912.74점으로 1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는 906.37점을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시장 독과점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지며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가 점차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3위는 891.00점을 기록한 페이스북이, 4위는 884.78점을 받은 트위터가 차지했다. 다음(807.21점), 라인(802.95점), 밴드(802.9점)가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헉! 런던서 날아온 '카드결제 문자'

카드사 해외 부정사용 예방도 처리도 나몰라라
"고객님이 영국에 전화해 승인취소 해결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어느 날 자고 있던 중 문자 알림 소리에 잠을 깼다. 문자 내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롯데카드가 영국 런던의 모 쇼핑몰에서 결제가 됐다는 것이었다.

K씨는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결을 시도 했으나 롯데카드 측은 지금 당장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단 분실신고는 즉시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원은 본인이 영국에 직접 전화해 승인 취소신청을 해 사태는 해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 유출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카드사들이 해외 부정사용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국내에 있고 명확하게 부정 사용된 징후가 없다면 즉시 승인을 취소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 타령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의 해당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리 고객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해외에서 카드가 부정사용 되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롯데카드는 국내와 국외 모두를 모니터링 하는 FDS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도 두고 있다고 카드사 관계자는 밝혔다.

해외 부정 카드 사용만을 예방 포함 대응하는 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롯데카드 관계자는 "별도로 없다"며 "대부분이 정상 결제이고 해외 부정사용건은 백만 분에 한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신용카드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분 롯데카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중이며 해외 부정사용에 대한 대응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 부정사용으로 고초를 겪은 또 다른 카드회원은 "황당히 정보가 새나가 결제가 됐음에도 카드사들의 대응은 한결같다. 나중에 두고 보자 또는 일단 도난 신고 후 해결하자는 식"이라며 "그 사이에 겪어야하는 고충과 발생할 지도 모르는 비용에 대해서 국내 카드사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윤·서승희기자 sshs@metroseoul.co.kr

재건축 빗장 열리자, 집값 상승 도미노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재건축 규제 [illegible]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와 인근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강남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연말정산 환급액 아! 짜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해 당황한 직장인들이 많다. 정부는 원천징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됐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는 매달 3만444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인 지난해부터는 7750원 줄어든 2만6690원을 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보다 9만3000원의 세금을 월급에서 덜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현정기자 hjkim1@

레버리지ETF '미친 인기' 해외 사냥

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
"박스권일때 사두자" 심리
올들어 1조3000억원 몰려

박스권에 갇힌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20조원 규모의 국내 ETF시장에서 74%를 차지하는 레버리지형 ETF가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보폭을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

23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국내 레버리지ETF에 새로 유입된 자금은 1조3000억원으로 이 기간 액티브주식형펀드에 유입된 자금(3000억원)의 4배를 웃돌았다.

레버리지ETF는 선물투자 등을 통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수가 박스권 하단으로 밀렸을 때 레버리지ETF에 들어가 고수익을 노리려는 수요가 몰렸다.

특히 올 들어 국내주식형ETF의 수익률이 -5.75%로 부진한 데 반해 해외주식형ETF는 -0.12%로 낙폭이 덜했다. 이에 기존 국내 투자형 레버리지ETF만 허용하고 해외형은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라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가 다음달 안으로 해외 레버리지ETF 금지규정을 개정하면 이르면 오는 5월 대형 자산운용사를 통한 해외레버리지ETF 신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레버리지ETF의 특성상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수 상승률 대비 2배 수익을 노리는 동시에 손실도 2배라는 점에 주의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국내 ET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최저 -10%에서 최고 9%대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레버리지ETF가 줄줄이 하위권을 기록해 약세장에서 레버리지ETF의 약점을 드러냈다.

/김현정기자 hjkim1@

더 얇아진 '손목 위 스마트 허브'

삼성전자 '기어2' 공개…독자 OS 타이젠 적용
심박센서 탑재해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진화

삼성전자가 손목 시계형 스마트폰 갤럭시 기어의 후속작 '삼성 기어2'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MWC)'에서 '삼성 기어2'와 보급형 '삼성 기어2 네오'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 기어2'는 안드로이드 대신 삼성전자가 개발한 운영체제(OS) '타이젠'을 탑재한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삼성 기어2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기어'와 달리 '갤럭시'란 명칭을 빼고 선보이게 됐다. 하지만 삼성 기어2는 갤럭시 기어처럼 갤럭시 노트3와 연동해서 사용 가능하다.

삼성 기어2는 기존보다 더 얇고 가벼워지면서 사용 시간은 대폭 늘어났다.

기기 무게는 68g, 두께는 10.0mm로 휴대성에 강화됐으며 최대 충전 시 기존 25시간에서 최장 7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를 돕는 심박 센서도 탑재해 사용자의 심박 정보와 운동 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삼성 기어2는 음악파일 저장공간을 제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지 않더라도 뮤직 플레이어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 워치온 리모트' 앱은 적외선 센서가 들어있는 텔레비전과 셋톱박스 제어 리모컨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제품의 스트랩(시계줄)은 차콜 블랙, 골드 브라운, 와일드 오렌지 총 3종의 색상이 있으며 갤럭시 기어보다 질감과 착용감을 개선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MWC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3 네오'와 '갤럭시 코어 LTE' 등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IM부문장 신종균 대표는 "삼성 기어2는 패션과 스마트 기능을 모두 추구한 웨어러블 기기"라며 "혁신적이고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지속 출시해 시장 선두주자의 입지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 que@metroseoul.co.kr

삼성 기어2의 모습. 밴드형 시계 줄인 스트랩의 색상이 갤럭시 기어2 제보다 늘어나고 착용감이 개선됐다. /삼성전자 제공

아파트 범죄예방 설계 12월부터 적용 의무화

올 12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범죄예방 설계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건축 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따르게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외부 계단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어린이집이나 놀이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단지 중앙에 두어야 한다.

/정윤희 기자

경보제약·유한킴벌리… 알짜기업들 채용 줄이어

알짜기업들이 인재채용에 나서고 있다.

2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경보제약이 27일까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제제연구와 합성연구(연구팀), 생산시설유지보수(지원팀), 생산관리(생산관리팀), 혼합 및 과립과 분광/선별 및 포장(생산3팀)이다. 인크루트 채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입사지원서를 내려받아 e메일(recruit@kbpharma.co.kr)로 지원하면 된다.

유한킴벌리도 28일까지 인크루트 채용홈페이지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제품기획, 영업 부문이다.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또는 2014년 2월 취득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두원공조 역시 다음달 2일까지 홈페이지(www.dwdcc.com)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이국명기자 kim

스페인 달구는 SKT·KT 속도 전쟁 SK텔레콤과 KT가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MWC 2014)에서 각각 기존 LTE보다 6배 빠른 450Mbps LTE-A(광대역) 위방향 [illegible]Mbps 이상의 속도인 구리선 기반 초고속 인터넷 전송기술인 'FTTH-G' 솔루션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팬택 2년만에 다시 워크아웃 위기

팬택이 2년여 만에 또다시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위기설에 직면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최근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위기에 처한 팬택에 더이상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워크아웃 신청을 할 경우에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신청하기 위한 최종 권한은 팬택에게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만일 (팬택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2012년 3분기부터 또다시 적자로 돌아선 후 6분기 연속 적자다. 결국 창업주 박병엽 전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이재영기자

인기 개그우먼 김지민씨가 참가자와 함께 스마트 카메라로 셀카 잘 찍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 카메라, 느낌아니까!

삼성전자 김지민과 함께 '뷰티 클래스' 특강 진행

인기 개그우먼 김지민이 스마트 카메라 특강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학동 사거리에 위치한 삼성 스마트카메라 스튜디오에서 개그콘서트 '느낌 아니까!'의 유행어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개그우먼 김지민과 함께 '스마트카메라 뷰티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김지민은 셀카 사진 잘 나오는 포즈와 표정 등 자신만의 사진 잘 찍는 비법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바로 전송하는 등 스마트카메라의 각종 기능을 체험했다.

삼성전자 S아카데미 기간 동안 스마트카메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메이크업 브랜드 바비 브라운의 셀프 메이크업 강좌까지 함께 열려 큰 화제를 모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윤정(23)씨는 "김지민씨에게 직접 셀카 표정을 배우고 함께 사진도 찍는 등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김지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카메라 뷰티클래스'는 다음달 15일 다시 한 번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 9일까지 아카데미 대상 모델을 구매한 후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제품 등록 및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정윤희기자 unique@

아베노믹스의 자충수

금융가 사람들

■ 동양증권 이철희 연구원

내수 회복세가 약해 빠진 수출체력 더 흔들어 예상 밑돈 4분기 성장률 … 다시 장기침체 우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미쳤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에 '특효약'처럼 여겨졌던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예정대로 오는 4월 소비세까지 인상될 경우 일본이 다시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양증권 투자전략팀 이철희(사진) 연구원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연율 1.0%) 성장했다"면서 "이는 시장 예상치 0.7%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내수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면서도 "수출은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국제 경쟁력 약화, 신흥국 수요 부진 등으로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 회복세 때문에 수출 여력이 감소하는 품목이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라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해 시멘트 수출량은 877만 톤으로 전년 대비 96만 톤 감소했다. 공공사업 확대와 주택건설 회복으로 국내 판매가 증가한 것이 수출을 줄이고, 국내 판매로 향하게 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 부문에서도 건설, 자동차 등에서 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일본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몇가지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며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과 리먼 쇼크 이후 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들은 해외 생산거점 이전을 확대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 빠르게 변하는 IT 부문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뒤처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한층 강하게 진행돼 다른 국가들의 수출 회복이 강하게 이뤄진 다음에나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현희기자 mia@metroseoul.co.kr

한-호주 5조원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이 호주와 5조원(약 45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원화를 활용한 이번 협약으로 제2의 외환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글렌 스티븐스 호주 중앙은행 총재와 5조원 상당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통화스와프로 양국 중앙은행은 무역 결제 지원 등을 위해 5조원 이내에서 상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호주와 통화스와프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기도래 시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원 부국인 호주는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거시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신용도도 좋다"며 "한국과 통화스와프는 실질적인 효과 외에 한국경제가 그만큼 건실하다는 신호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한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1200억달러로 늘어났다. /서국태기자 kstae@

1인용 가전 그야말로 전성시대 23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1인 가구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1인용 밥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미니포트 83%, 라면포트는 357%나 매출이 증가했다. /홈플러스 제공

윈도 8.1 가격 70% 인하 전망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신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8.1의 가격이 최대 70%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구글 크롬북을 겨냥한 것으로, 저가PC에 들어가는 윈도8.1을 저가에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CNN 등 외신들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250달러 미만의 노트북에 깔리는 윈도8.1의 가격이 대당 50달러에서 15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MS는 이에서 레노보 등이 만드는 8인치 태블릿에 윈도8.1을 공짜로 넣어주는 등 본격적으로 구글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 역시 저가 노트북 시장에서 윈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박성훈기자

에어아시아 오늘부터 일주일 '빅 세일'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총 7일간 빅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빅 세일 특가항공권의 여행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로, 개천절과 한글날에 휴가를 내면 긴 연휴를 낼 수 있는 10월의 황금연휴와 연말연시가 포함된다.

이번 파격적인 특가항공권은 서울-쿠알라룸푸르 편도 항공권이 최저 9만9000원부터, 부산-쿠알라룸푸르 최저 8만8000원부터 시작한다.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 인기 여행지가 서울 출발 기준 방콕 12만5900원부터, 싱가포르 12만5900원부터, 푸켓 13만2900원부터, 코타키나발루 13만5900원부터, 발리 14만3900원부터 등이다. 부산 기준은 방콕 11만1900원부터, 싱가포르 11만1900원부터, 푸켓 11만8900원부터, 코타키나발루 12만1900원부터, 발리 12만5900원부터 등이다.

호주 노선도 파격 빅 세일에 포함됐다. 작년 10월에 새롭게 취항한 남호주 노선인 애들레이드가 서울 출발은 15만8500원부터, 부산 출발은 14만7900원부터며 높은 인기로 대폭 증편된 기존 호주 노선도 서울-퍼스 15만8900원부터, 서울-멜버른 18만9900원부터, 서울-시드니 17만7900원부터, 부산-퍼스 14만7900원부터, 부산-멜버른 16만6900원부터, 부산-시드니 16만3900원부터로 파격적인 요금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특가항공권은 24일 새벽 1시부터 3월 2일까지 에어아시아 웹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포털 "문화 콘텐츠 잡아라"

네이버 온라인 첫 박수근 주요작 공개…다음 23개국 언어 집대성

NAVER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 展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가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극장, 도서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플랫폼은 온라인과 모바일이지만 문화 콘텐츠의 저변을 확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한국 근대미술의 대표 작가 박수근의 주요 작품을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최초로 공개했다. 갤러리현대와 공동으로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사진)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수근의 유화, 드로잉 대표작 76점을 만날 수 있다.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빨래터'부터 '절구질하는 여인', '모자' 등 유명 작품들이 한자리에서 공개된다.

네이버는 최근에도 간송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을 전시하는 '간송문화전'을 비롯해 김환기, 장욱진, 백남준 등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온라인에 전시한 바 있다.

네이버는 영화 콘텐츠 공급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1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영화 전문 정보를 담은 '테마로 보는 영화 걸작 사전 500'(이하 영화 작품 사전)을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500편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 '범죄 영화' 등 35개 테마로 구성됐다. '벤허', '스파르타쿠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트루먼쇼' 등 85편의 영화가 이번에 1차로 공개됐다.

앞서 네이버는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손잡고 '온라인 인디극장'을 오픈했다. 이용자는 네이버 영화에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인디극장' 코너에서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감상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외대와 함께 아랍어, 체코어, 스와힐리어 등 23개 언어 사전을 집대성해 눈길을 끈다.

▲아시아권 6개(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힌디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태국어) ▲유럽권 12개 언어(프랑스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스페인어) ▲아프리카권 1개 언어(스와힐리어) 등 총 23개 언어, 25종(영영, 한자 포함)의 어학사전을 제공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종이 백과사전에 버금가는 깊이와 정확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문화 콘텐츠와 같은 고급 정보를 원하는 유저가 늘고 있는 것도 책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동계스포츠 체험해 보세요 23일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어린이들이 컬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천호점에서 27일까지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도전 동계 스포츠 키즈 챌린언'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라바' 제작자 투바앤 주최 대학생 애니 공모전 시상식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대홍기획이 후원하고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라바'를 만든 제작사 투바앤이 주최한 '제 1회 대학생 창작 애니메이션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렸다.

이 날 시상식에는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및 대홍기획, 투바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상자들은 대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700만원을 비롯한 총 상금 2100만원과 상장, 상품 등을 받았다. 앞으로도 투바앤은 콘텐츠 분야의 인재발굴과 관련 업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백신 위장한 스미싱까지 등장

"SNS·문자에 포함된 URL 실행하면 안돼"

스미싱의 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카드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로 관심이 높아진 모바일 백신을 사칭하는가 하면 금메달 논란에 휩싸인 김연아 선수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는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23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연아 하고마워! 빼앗긴 금메달 저희가 위로 드립니다! 위로금 10만 ***.com'이란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문자에 들어있는 URL(인터넷주소)을 클릭하면 김연아 선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도박 사이트가 등장한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이용에 대한 공지 및 안내에 대한 문구도 없이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21일에는 안랩의 'V3 모바일 플러스'를 사칭해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 문자가 발견됐다. 이 스미싱 문자는 '[개인정보보호] MY주민번호로 안전하게 보호 h***://** am/** (혹은 b***//cox.**/3***)'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안내하는 것으로 속기 쉽다.

특히 이 앱은 설치하면 약 1시간 후 허위 악성코드 감염 경고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빼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에 포함된 URL은 절대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며 "모바일 백신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공인인증서 발급 까다로워져

6월부터 사전에 등록된 PC나 스마트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국명기자

MS '유스스파크' 참가자 모집

마이크로소프트(MS)가 청소년 대상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MS는 유스스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MS가 2012년 처음 선보인 유스스파크 챌린지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겨루는 청소년 경진대회다.

전세계 경합에서 1차로 선발된 20명에게는 서피스2가 주어지며 최종 선발된 5명에게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의 기회를 비롯해 2500달러의 상금, 윈도폰, 엑스박스원 등의 상품이 제공된다.

참가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 유스스파크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국MS 김 제임스 사장은 "유스스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희기자

타깃 선정만 잘해도 창업 성공 보인다

전문가들 "명확한 고객층 가진 아이템 선택 유리" 한목소리

지난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인구(18세~64세) 5명 중에 1명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으로 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창업을 통해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예비 퇴직자, 육아·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층까지 전 세대에 걸쳐 창업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역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신규 창업자 99만4000명 중 85%에 달하는 84만5000명이 폐업했다. 평생 어렵게 모은 목돈으로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했지만 10명 중 2명만이 겨우 시장에 안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템은 물론 상권, 경쟁사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특히 창업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안정된 생활을 꿈꾼다면 소비층 분석이 상권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사전에 챙겨야 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창업 전문가들은 "명확한 고객층을 가진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 타깃이 명확해지면 점포의 특색이 분명해지고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사진)의 경우 가맹 사업 시작 전 3개의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검증한 끝에 '한식 위주의 프리미엄 웰빙 도시락'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웠다고 한다. 건강한 식과 먹거리에 관심이 많고 경제력이 있는 직장인을 중심 타깃으로 삼았다. 명확한 콘셉트와 고객층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본도시락이 20대부터 40대까지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자의 58.5%가 도시락 취식 장소로 직장을 꼽았다. 30대의 도시락 구입비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평균 500원 이상 높아 30대 직장인들이 본도시락의 주 타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6000원 후반 대 이상의 특선 메뉴와 1만 원 이상의 명품 도시락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7%에 달하기도 했다. 본 도시락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다.

스쿨푸드의 경우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톡톡 튀는 메뉴를 선보였다. 스쿨푸드의 대표 메뉴 마리는 김밥과 달리 속재료를 한두 가지로 제한해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꺼리는 마음을 읽은 것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성공한 브랜드가 개별 창업자에게도 반드시 성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며 ▲프랜차이즈의 경우 비교 업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창업자의 경험을 확인해야 하며 ▲'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위한 세심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랑기자 sms@metroseoul.co.kr

한촌설렁탕 문화 이벤트

30년 이상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프랜차이즈 설렁탕전문점 '한촌설렁탕'이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3월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문화이벤트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회사의 공식 블로그 리뉴얼에 대한 소식을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에 스크랩하면 추첨을 통해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초대권을 선물로 증정한다.

한촌설렁탕 관계자는 "지속적인 문화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공연은 2013년 문화이벤트 진행 당시 고객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기에 앵콜 이벤트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혜랑기자

야쿠르트아줌마 1만3000명 한자리에 전국 1만3000여명의 야쿠르트아줌마가 4년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22일 기흥 현심원·휘월드센터에서 '제43회 야쿠르트대회'를 열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제결조 우먼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인 야쿠르트 아줌마들에게 시상식과 축하행사를 열어 최고의 학우를 선사했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장거리 여행엔 '스톱오버' 제격!

항공권 구매 노하우

올해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67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연휴가 몰려있는 5월이나 추석연휴가 있는 9월엔 일주일정도 연휴를 누릴 수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톱오버'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단거리 비행이라면 직항이 좋지만 유럽·미주 등 장거리 여행일 경우 경유지 환승을 추천한다. 환승 항공편은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스톱오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예매만으로 두 곳을 갈 수 있어 일석이조다.

스톱오버는 항공권 구매 시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지가 선정되면 경유지에 따라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항공사에 따라 스톱오버 서비스의 절차가 다르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항공사도 많으며 1회에 10만원 정도 추가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얼리버드가 되자

항공권 가격은 구매 날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예매할수록 유리한 편이다. 여행 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3년 동안 회원들의 항공권을 분석한 결과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는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출국 6주 전에 예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은 3월에 가장 저렴하고, 주단위로 구분할 경우에는 12월 첫째 주가 저렴하다. 영국행 항공권은 17주 전에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며 유럽으로 갈 경우엔 4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이 적합하다.

◆부영이 여행객을 위한 프로모션 및 땡처리 항공권

주말에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일명 '부영이' 여행객에겐 항공사 프로모션이나 '땡처리' 항공권을 추천한다.

항공사들은 수시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수시로 확인하면 좋다.

여행 및 항공권 사이트를 통해 마감임박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여행사는 항공권을 대량 구매하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데 출발날짜가 임박한 항공권은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해 이를 노리면 싸게 살 수 있다. /김학만기자 [illegible]

“우리도 저거 해먹자” 레시피 마케팅 붐

식품업계 단순 제품 홍보 탈피…적극적인 소비 유도 방법으로 부각

최근 일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짜빠구리', '오코라 만두' 등 간단 요리법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창의적 레시피를 담은 블로거의 포스팅이 인기를 얻고 있다.

어엿한 식품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식품업체들은 레시피 마케팅에 힘을 쓰고 있다. 이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던 보수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제품을 활용해 변형까지 감행하는 파격적인 마케팅인 동시에 진정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마케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레시피 마케팅'을 통해 바로 블로그에 해당 레시피를 올리거나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플로리다 내추럴'은 국내 유명 셰프들이 직접 개발한 '플로리다 내추럴 주스 레시피북'을 발간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내추럴' 협동조합 외 농부들이 레시피 콘테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특별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클래스가 모집 시작 2일 만에 마감되고,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홍초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홍초 칵테일 소주'는 믹스주의 대명사가 되었다. 최근에는 메로나주·에너자이저주 등 믹스주의 계보가 다양해졌다.

'순두유'는 두유와 '순두유 섞어주'를 개발해 공개하자 페이스북 유저들과 블로거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확산 되며 홍초 칵테일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순두유 섞어주'는 순두유와 막걸리를 3:1 비율로 섞어 마시는 간편한 레시피로 막걸리 특유의 끝 맛을 없애주고 고소한 끝 맛을 느낄 수 있다.

상하치즈의 경우 고급화 마케팅으로 치즈를 활용한 레시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치즈'는 치즈는 어려운 식품이라는 편견을 깨고 집에서도 샐러드, 크로크무슈, 피자·이유식 등에 치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카망베르는 올린다, 체다는 굽는다, 모차렐라는 녹이고, 고다는 들린다'라는 이기세의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정현철기자 jmms@metroseoul.co.kr

동영상 사이트는 '5초 광고' 전쟁터

'청달기' 클릭하기전 홀리려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 '불만'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가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과거 '15초의 승부'라 불리던 TV 광고는 인터넷 동영상 광고로 옮겨가 '5초 승부'로 진화했다. TV광고와 동영상 광고의 차이점은 '건너뛰기' 버튼이다.

이 버튼은 광고를 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졌는데 이를 클릭하기 전에 5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만 해 업계에선 5초 아이디어 전쟁이 치열하다.

'발아식물 화장품 브랜드 프리메라'는 지난 10일 신제품 '슈퍼 스프라우트 세럼'을 출시하며 '응답하라 어린 생기' 광고 영상(사진)을 제작했다.

사조해표는 "안심따개 참치편" 광고 영상에서 경쟁업체들에 사용하는 칼질 잠자편을 날카로운 칼에 비유해 요리를 하고 사조참치 안심 따개는 쉽게 따서 손으로 모습을 보여줘 안전성을 각인시켰다.

코오롱 브랜드 스니커즈는 '좀비변신 영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출출할 때 넌 네가 아니야'라는 문구에 맞춰 제작된 이 영상은 누구나 출출할 때는 또 다른 나로 변신한다는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시간 얼굴 합성 기술과 몰래 카메라 방식으로 제작됐다.

현대자동차는 '차에 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주제로 전 세계 고객 17만여 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 영상에 담았고, 기아자동차는 K5터보와 이상화 선수의 40m 빙상경주 영상을 공개해 인기를 끌었다.

/정직도기자

'프리미엄 버거' 버거킹 먹는 이정재 ... 전속모델 발탁

버거킹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새로운 얼굴로 영화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발탁했다. 회사 측은 프리미엄 버거 출시에 앞서 최근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영화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앞세우면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버거킹 제공

헬스셋, 드라마 '여자만화 구두' 제작 지원

제주조릿대 자율료 업체 출연진 피로회복제 '후문'

제주조릿대 자 음료로 잘 알려진 헬스셋이 SBS플러스 미니드라마 '여자만화 구두'의 공식 제작지원에 나섰다.

헬스셋 제주조릿대 자 음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생물권 보전지구에서만 서식하는 작은 대나무 잎 효소추출액 99.8%로 만들어졌으며 엽록소, 미네랄·아미노산, 폴리페놀 등 식물성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 조릿대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의 약학 서적에서 인삼은 능가할 만한 효능을 지닌 약초로 대나무 중에서도 약성이 매우 뛰어나 당뇨병·고혈압·위염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SBS플러스 미니드라마 '여자만화 구두' 포스터

/각 스포메디 제공

이 때문에 '여자만화 구두' 제작진 및 출연진들의 힘든 촬영 여정에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후문이 난 적도 있다.

한편 드라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스물넷 여자 신지추(한승연)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스물여덟 남자 오대수(홍종현)의 서서 연애 이어기로 2011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윤영 작가의 '여자만화 구두'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드라마는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케이블 TV SBS Plus에서 첫 방송된다.

/정현철기자

진격의 팔도라면…리뉴얼 후 매출 쑥쑥

'꼬꼬면', '왕뚜껑', '도시락' 등 팔도의 주력 제품들은 지난해 맛과 품질을 새롭게 리뉴얼한 후 매출이 신장됐다. '왕뚜껑'은 3개월 동안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 이상 신장했고, '꼬꼬면'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250만개 이상이 판매됐다.

또 지난해 말 '남자라면 용기면'을 먼저 리뉴얼한데 이어 '남자라면' 봉지면은 마늘 양념을 사용해 반죽한 면발과 마늘 슬라이스가 들어있어 얼싸하고 개운한 매운맛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꿨다. 나트륨도 100mg을 줄였다. 가격(850원)과 용량(115g)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팔도는 올해 9종의 라면 제품을 추가로 리뉴얼 할 계획이며 2월 중에 '미니 왕뚜껑'과 '비빔면 컵'을 새롭게 개선해 출시할 예정이다. '미니 왕뚜껑'은 진하고 얼큰한 맛을 강화했지만 나트륨 함량은 20% 이상 줄인다.

조용한 엔진·안락한 승차감 두번 반하다

혼다 오딧세이 시승기

아웃도어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차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혼다코리아가 선보인 미니밴 '오딧세이'도 이런 차종 중 하나다. 국내에는 2012년 말 공식 데뷔했고 올해 2월 초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 선보였다.

풀 체인지 모델이 아닌 만큼 대폭적인 변화보다는 몇 가지 장비를 추가하고 성능을 개선한 수준의 변화가 이뤄졌다. 겉모습에서는 블랙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블랙 베젤 타입 헤드램프가 돋보인다. 범퍼 하단에는 크롬 라인을 넣어 멋을 부렸다.

◆영화관만큼 생생한 사운드

실내에서는 2·3열 시트 승객을 위한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RES)이 추가된 게 가장 큰 변화다. 천장에 수납되는 9인치 스크린을 펼치고 헤드폰을 끼면 영화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번 시승회에서는 '아이언맨3'가 준비됐는데 헤드폰을 써보니 영화관만큼의 생생한 사운드가 들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크린이 조금 더 크면 좋겠다는 것. 미국 판매 모델은 화면이 좀 더 큰 와이드 스크린을 고를 수 있으니 한국에는 9인치 한 가지만 수입된다.

오딧세이는 경쟁 미니밴 중 차체 높이가 가장 낮다. 오딧세이가 1735mm인 반면에 토요타 시에나는 1790mm이고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는 1750mm다. 미니밴은 차체 높이가 높으면 실내공간 활용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핸들링에서는 불리하다. 따라서 오딧세이는 주행성능에 좀 더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속기 5단→6단…고속 주행에도 뛰어난 정숙성
천장에 9인치 스크린…30~50대 레저족에 인기 끌듯

엔진은 기존 V6 가솔린을 그대로 썼고 변속기를 5단에서 6단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변화의 효과는 미세하지만 주행성능에 영향을 미쳤다. 기어비를 좀 더 잘게 쪼개 쓰면서 고속에서 엔진 회전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 덕에 고속이나 높은 rpm(엔진 회전수)에서 엔진음이 한층 더 조용해졌다. 최고출력은 시에나가 266마력,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가 283마력으로 오딧세이(253마력)보다 높지만 실제 주행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승차감은 그랜드 보이저보다 단단하고 시에나보다 무르다.

직진성은 우수한데 좌우로 급격히 방향전환을 할 경우 자세가 흐트러진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60R18이고 시에나는 235/55R18이다. 이 편평률의 차이가 핸들링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랜드 보이저는 225/65R17이어서 핸들링보다는 승차감에 비중을 둔 세팅이다.

◆2열 중앙시트 장착 미니밴

오딧세이는 동급 수입 미니밴 중 유일하게 2열 중앙 시트를 장착한 8인승이다.

이번에 추가된 중앙 시트는 보조석의 성격이 강해서 성인이 앉기에는 좁다. 대신 시트를 젖히면 컵홀더나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시에나와 비교하면 2열의 슬라이딩 거리가 약간 짧다. 시에나는 2열 시트를 1열 바로 뒤까지 붙일 수 있어 짐 공간을 늘리기에 낫다. 또한 시에나는 2열 승객의 다리를 받쳐주는 오토먼 시트가 장착되지만 오딧세이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세 차종은 모두 3열 시트를 바닥에 수납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다. 이 가운데 시에나는 유일하게 전동식으로 시트를 수납할 수 있어 좀 더 편리하다.

혼다 오딧세이는 안락한 승차감을 중시하고 레저활동을 즐기는 30~50대에게 인기를 어필할 거다. 오딧세이는 5190만원, 시에나는 5020만원인데, 오딧세이는 시에나에 없는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하고도 가격차이가 170만원밖에 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을 태울 일이 많은 이라면 오딧세이에게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랜드 보이저는 6070만원으로 가격이 조금 높다.

/정재학기자 ferrari59@metroseoul.co.kr

혼다 디젤·소형으로 승부

혼다코리아가 디젤 모델과 소형차를 대거 투입해 승부수를 던진다.

19일 혼다 오딧세이 시승회에 참석한 정우영 사장은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 사장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서 판매가 저조한 것은 가격 저항 때문인 것 같다"면서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기본 가격이 높아 한국에 들여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CR-V 디젤 모델의 경쟁력이 있어서 준비가 되는대로 한국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저탄소 협력금 제도에 대해서 정 사장은 "배기량이 큰 회사가 불리한 제도인데, 혼다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같은 국내 업체도 반발이 있을 거 같다"면서 "본격 시행 전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혼다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소형차를 대거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신형 제네시스보다 더 날렵한 '인트라도' 제네바 모터쇼 등장

현대차가 개발 중인 투싼ix 후속모델(TL)을 바탕으로 한 콘셉트카 '인트라도(Intrado·**사진**)'가 오는 3월 개막하는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된다. 인트라도의 실사 사진이 한국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싼ix 후속모델이 될 이 차는 현대차의 디자인 언어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담아내고 있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신형 제네시스와 닮았으니 좀 더 날렵하고, 곧 데뷔하는 쏘나타 후속모델과도 비슷하다. 테일램프는 'C자' 형상으로 멋을 부렸다.

차체는 3도어 타입이며 투싼ix 후속(유럽에서는 ix35)에 없은 새로운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을 얹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투싼ix 연료전지차는 수소충전소에서 5분간 수소를 충전하면 635km를 달린다.

실내는 콘셉트카의 분위기가 물씬하지만 일부 디자인은 양산차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어링 휠은 스포티한 D컷 타입으로 제작됐으며 디지털 클러스터를 장착해 세련미와 시인성을 높였다. 센터페시아는 매우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택했는데, 양산차에는 이보다 현실적인 디자인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재학기자

< 럭셔리 중형 세단 중고차 시세 >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YF쏘나타	-	1,360	1,420	1,810	1,900
기아	K5	-	1,460	1,620	1,800	1,900
르노삼성	뉴SM5시젤		1,350	1,380	1,690	-
쉐보레	말리부	-	-	1,980	2,010	2,160
벤츠	뉴C클래스	2,810	3,020	3,290	3,740	4,040
BMW	뉴3시리즈	2,630	2,870	2,990	3,640	-
아우디	뉴A4	2,470	2,550	2,920	3,040	3,750
렉서스	IS	2,310	2,560	3,000	5,200	
폭스바겐	CC	2,450	2,610	2,980	3,110	
캐딜락	올 뉴 CTS	2,150	2,530	2,890	2,930	2,95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남북관계의 '경칩' 기다리며

뉴스룸에서
김 하 성
<부국장>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3년 4개월만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켰다. 1차에 이어 2차 상봉도 북측 상봉 신청자 88명과 남측 가족 357명이 만나 25일까지 금강산에서 혈육의 정을 나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장성택 처형 이후 가득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첫 물꼬를 텄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전에 직면했던 박근혜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북한측 단장인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은 1차 상봉 후 조선신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상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이후다. 상봉 행사가 끝나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상봉대가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안문제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식량과 비료지원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핫이슈로 부각될 것이 분명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 등 정치적 사안은 우선 제쳐 두고라도 본격적인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현안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풀어 가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바마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 의제 중 남북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 재편에 관한 논의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조심스런 분석이다.

최근 남북을 오고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그의 방북과 관련, 북한 외무성이 중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류 부부장을 접견하고 "중국 측이 6자회담 재개 여건조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자간 물밑 협상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 언급한 '통일 대박론'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물론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도 안된다.

다음달 6일은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남북관계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대화를 통해 화해 무드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늙어가는 이산가족, 시간이 없다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 주에 열려 이산의 한(恨)을 달랬다. 납북 어부가족을 포함한 남측 이산가족 82명이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가족과 감격스러운 해후를 했다. 상봉 가족 가운데에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그토록 그리던 가족을 만나 볼을 비비고 가슴이 메어지도록 통곡하는 고령의 이산가족이 심금을 울렸다.

2차 대전 이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이산의 아픔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6·25전쟁과 분단으로 60년이 넘게 생이별한 사연은 생각만 해도 엇을 수 없는 비극이다. 이미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진 이산가족이 5만 7784명이나 된다. 현재 7만1480명만 생존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3년 이후 이산가족 사망자수는 매년 3800여명에 달하지만 상봉자수는 1600여 명에 불과하다"며 결국 22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산가족이 2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하고 70대 이상 고령층은 10년 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모든 생존자가 북측가족을 만나려면 매년 상봉자를 6600명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결국 지금처럼 100명도 안 되는 규모로 찔끔찔끔 상봉행사를 치르면 이산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워야한다. 우선 횟수를 크게 늘리고 면회 장소도 금강산호텔 뿐만 아니라 판문점,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DMZ내 세계평화공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회성 이벤트를 벗어나 상시화를 추진해야한다.

나아가 이제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은 물론 자유로운 서신 교환, 영상 상봉, 고향 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대상자 추첨 선정 방법도 '고령 자우선'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젠가는 남북이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측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인도적 차원에서 독일이 추구한 '접근을 통한 통일'의 길이 될 수도 있다.

포토프리즘

대치동 아이들 "선행학습 금지법, 대환영"

지난 20일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가가 몰려있는 거리를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 학생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육환경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손진영기자 son@

의류업계 '겨울의 배신'

기자수첩
박 지 원
<생활레저부 기자>

"날이 이렇게 따뜻한데 누가 겨울옷을 사겠어요? 올겨울 장사는 이미 끝났어요. 남은 옷은 빨리 땡처리해야죠. 봄옷으로 재미를 봐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한 패션브랜드 디자인 실장의 푸념이다.

최근 겨울 같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의류업계들이 미리 준비해둔 겨울옷이 안 팔려 울상을 짓고 있다. 게다가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잇따르면서 업계마다 헤비다운·패딩 같은 겨울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해둔 터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아웃도어·패딩 목도리 내의 등을 중심으로 겨울 상품을 준비했던 대형 패션 유통업체들도 매출 부진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신진디자이너 브랜드와 같은 중소업체들은 그나마 단가가 높은 겨울옷을 팔아야 회사를 꾸려나가는데 변덕스러운 날씨 탓으로 '때 아닌 겨울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겨울옷 판매가 주춤하면서 재고 부담이 늘었다"며 "남은 옷을 세일해 팔다보니 손해가 막심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다보니 봄 시즌까지 재고 소진을 위한 업체 간의 출혈 할인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종류의 겨울 제품을 쏟아내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더라도 경기불황과 이상기후로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꽃피는 봄에는 패션업체들이 발 빠른 상품 기획과 톡톡 튀는 마케팅 전략으로 올겨울 놓친 '반짝 특수'를 만회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메리칸 허슬, 코리안 허슬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최근 개봉된 영화 '아메리칸 허슬(American Hustle)'은 사기극을 벌인 남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서로 짜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허슬'이라는 말은 '거칠게 떠밀기'이다. 사기, 열정적 에너지, 70년대 유행하던 춤 등을 이르는 매우 다양한 뜻을 지녔다. '미국식 사기극'이라고 번역할 만한 제목이지만 이 영화에는 '허슬'의 여러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데 영화를 이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타짜'나 '도둑들' 같은 작품을 떠올리면 오산이다. 이제는 고전이 된 '스팅'이나 '이탈리안 잡(Italian Job)'처럼 상대를 감쪽같이 속여먹는 스릴러도 사실 아니다. 물론 결정적인 반전의 속임수가 작동 하지만, 그보다 이 영화는 작품의 무대가 되는 미국의 70년대 중후반과 오늘을 서로 대조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의외의 매력이 있다.

주인공은 머리가 벗겨지고 배는 불룩 나왔다. 날렵한 얼굴을 연기해 온 크리스찬 베일의 상상을 넘는 변신이다. 그런 남자에게 미모의 에이미 아담스가 반한다. 지금이라면 이런 설정이란 대단히 비현실적이나, 둘은 잘 어울리는 사기극 파트너가 된다. 이와 함께, 명예욕에 사로잡힌 FBI 요원, 어떻게 거부의 투자를 애타게 원하는 시장, 가짜 아랍 왕족, 그리고 이권사업에 손을 대는 마피아가 등장한다.

이 시기는 어떤 때였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하고, 이와 관련된 CIA, FBI의 위신은 추락한다. 베트남전 패전과 오일 쇼크 등으로 미국 사회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친다. 안에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중동의 오일달러를 갈급해 했고, 온 몸으로 흔들어대는 허슬 춤을 추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의 미국도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다. 지금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현실이다.

어쩌면 우리가 더 할 지도 모르겠다. 도처에서 가짜가 판을 치고, 각종 속임수가 날로 기이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중이다. 영화 말미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미국 경제를 망친) 정작 잡아넣어야 할 자들은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진짜 허슬의 주역들은 꽁꽁 숨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코리안 허슬'이 나와야 할 판이 아닐까?

metro entertainment

'찌라시'서 유통업자로 돌아온 정진영, 그가 말하는 소문과 진실

연예인 A양과 B군의 비밀 연애, 배우 C의 태도 논란, 아이돌 D의 난잡한 사생활… 연예인과 관련한 가십기사는 항상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랭크되며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소문,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 거짓일까. 최근 개봉한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하 '찌라시')에서 정진영(49)이 던진 위 질문은 가십의 비밀과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몇 해 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로 진실을 파헤쳤던 정진영이 이번엔 소문을 전달하는 전직기자 출신의 '찌라시' 유통업자 박 사장으로 돌아왔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가 가진 소문과 진실을 파헤쳐봤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실제 성격, 카리스마 X 수다쟁이 O

소문1 베테랑 배우 정진영, 연예계 뒷소문에도 베테랑?

1988년 연극 '대결의 대결'로 데뷔한 정진영은 27년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출연 작품 수만큼 다양한 연예인과 호흡을 맞춰왔던 그는 연예계 소문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찌라시라는 것을 처음 접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받아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소문에 휩싸이는 게 직업적 운명 같아요. 안타깝지만 루머에 일희일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찌라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했다. "맨 처음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영화 '특수본'을 할 때였어요.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작사였고 시나리오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뜬금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시의성도 적절하다고 봤죠."

연기인생 27년차인데 연예계 뒷소문 많이 아냐고요? NO
배우에게 루머는 운명… 천재배우? 연기 항상 어려워요

이번 영화는 온갖 소문의 진원지로 잡히는 사설 정보지 '찌라시'의 세계를 담아낸 작품이다. '찌라시'에 담긴 루머에 희생된 여배우를 내세워 루머의 생성과 유통, 확산 과정을 그려냈다.

"무거운 영화는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소문의 행레를 따라가 본다'고 말하고 싶어요. 격조 있는 오락영화죠."

소문2 정진영 실제 성격, 알고보니?

'찌라시'의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스크린 속에서 때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었던 정진영은 남자가 대부분이었던 촬영장에서 의외로 유머를 담당했다고 전한다.

"배우들이 대부분 남자로 이뤄졌고 다들 조용한 성격이라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현장이 시끄럽다 싶으면 조용하고, 조용하다 싶으면 떠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정진영은 촬영 현장뿐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장난끼 가득한 모습과 능글맞은 말투로 극 중간 중간 관객들에게 웃음을 준다. "박사장은 주인공인 우곤(김강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인물이에요. 물론 그에게도 숨겨진 비밀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유쾌함으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탄력 있게 만들어 주죠."

소문3 정진영, 타고난 연기파 배우?

'달마야, 서울가자'의 청명스님, '왕의 남자'의 연산군, '님은 먼 곳에'의 밴드 리더, '브레인'의 의사 그리고 '찌라시'의 박사장까지 맡은 역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얼굴을 바꾸는 그는 타고난 천재 배우일까.

"연기는 항상 어려워요. 대본이 나오면 고시 공부 하듯 보는 편이죠. 극중 인물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시나리오에 적힌 그 사람의 인생을 느낌에 맞춰 따라가는 거죠."

작품마다 각기 다른 역할에 이입한다는 정진영은 이번 영화를 위해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8kg을 찌웠다. "영화 촬영 전에 감독이 실제로 만난 유통업자는 똑똑한 샐러리맨 같은 모습이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영화 속에 보이는 박사장은 우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사연과 이를 외형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통통한 몸에 장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원래는 휠체어를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조장치로 바뀌었어요. 이 때문에 촬영하는데 힘들었죠."

캐릭터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듯 이야기 하는 정진영. 쌍꺼풀이 짙게 진 선이 굵은 얼굴로 허물 없이 다가서며 호탕한 웃음을 짓는다. 매일 풀 메이크업으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민낯을 하고 나타났을 때 느껴지는 것 같은 당혹감이 스친다. 스크린을 벗어나 만난 그의 모습에서는 오늘의 정진영이 있는 이유가 있었다.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45만명이 외쳤다 "사랑해요, 슈주"

세계 20개 도시 투어 '슈퍼쇼5' 중국서 막내려…가는 곳마다 티켓 완판 행진

글로벌 K-팝의 대표주자 슈퍼주니어가 월드투어 '슈퍼쇼5'의 대미를 장식했다.

슈퍼주니어는 22일 중국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11개월간 이어온 '슈퍼쇼5'의 마지막 무대를 열었다. 이날 공연에서 슈퍼주니어는 '쏘리 쏘리' '미인아' '미스터 심플' '섹시, 프리&싱글' 등의 히트곡은 물론 앨범 수록곡 무대, 유닛 무대, 여장 및 어벤저스 캐릭터 분장쇼 등 28곡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공연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시나, 소후, 텐센트, 경화시보, CCTV, 동방위성TV 등 현지 매체들이 대거 참석해 '슈퍼쇼5'의 피날레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슈퍼주니어가 22일 중국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11개월간 이어온 월드투어 '슈퍼쇼5'의 마지막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슈퍼주니어는 지난해 3월 서울을 시작으로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칠레 산티아고, 페루 리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도쿄·오사카, 태국 방콕, 대만 타이베이, 중국 상하이·광저우·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영국 런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마카오 등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에 K-팝을 전파했다.

총 20개 도시에서 28회 공연을 하며 4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슈퍼주니어는 이번 투어에서 가는 곳마다 매진을 기록해 변함없는 티켓파워를 확인시켰다. 한국 가수 사상 최대 규모로 남미 4개국 투어 및 멕시코·영국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특별 강연을 하는 등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다.

슈퍼주니어의 단독 콘서트 브랜드인 '슈퍼쇼'는 2008년부터 세 차례 아시아 투어와 두 차례 월드 투어를 진행하며 총 97회 공연, 누적 관객수 135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슈퍼쇼5'의 대장정을 마친 슈퍼주니어는 개별 활동과 동해&은혁, 슈퍼주니어-M 등 유닛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참 좋은 시절' 주말극 독주 예고

첫방 시청률 23.8% 기록

김희선(사진 위)·이서진(아래) 주연의 KBS2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이 따뜻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22일 베일을 벗은 첫 회는 기존 주말 가족극과 다른 신선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경희 작가는 특유의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필력으로 강씨 일가 대가족들의 이야기를 구성지게 이끌어 냈으며, 김진원 PD는 배경이 된 경상북도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흡입력 있는 영상에 녹여 냈다.

방영 전부터 초호화 캐스팅으로 높은 기대를 모았던 이 드라마는 연기자들의 연기로도 이목을 끌었다.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김희선은 몸빼옷을 입고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는 등 생계형 대부업자 차해원으로 자연스럽게 변신했다.

이서진은 1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검사 강동석 역을 우직하고 냉담한 눈빛으로 표현했고, 이서진의 남동생 강동희 역을 맡은 옥택연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거칠고 무식한 '상남자'로 등장했다.

또 강동석의 관청인 윤여정과 마을 어린 강동탁으로 분한 류승수, 강동석의 쌍둥이 남매로 어릴 적 사고로 지능이 7세에 멈춰 있는 강동옥 역의 김지호를 비롯해 윤여정·최화정·김광규·김상호 등 베테랑 배우들이 등장해 앞으로 전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쓰는 사투리 대부분이 다른 지역 사투리다" "김희선의 사투리 연기와 옥택연의 과한 연기가 어색하다" 등 차후 방송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적들도 나왔다.

한편 이 드라마는 이날 시청률이 23.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방송 첫 회부터 20%대에 진입하면서 주말극 독주를 예고했다. 이 수치는 전작인 '왕가네 식구들' 1회 시청률인 19.7%보다 4.1%포인트 높다.

/박진현기자

브로디·피터한… 화제의 참가자 대거 탈락

'K팝 스타3' 톱10 확정…짜리몽땅·장한나·남영주 등 추가 진출

SBS '일요일이 좋다 – 서바이벌 오디션 K팝 스타 시즌3'의 톱10이 모두 결정됐다.

23일 방송분에서는 참가자들의 '배틀 오디션' 결과 심사위원 양현석·유희열·박진영이 생방송 무대에 진출할 톱10을 결정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버나드박·한희준·권진아·알맹(최린·이해용)·샘김이 톱10을 먼저 확정 지은 가운데 재대결을 통해 짜리몽땅(여인애·박나진·유태경)·장한나·베다니아·썸띵(김아현·정세운)·남영주가 추가로 진출하게 됐다. 짜리몽땅은 데스티니 차일드의 '스탠드 업 포 러브'를 풍성한 화음으로 불러 "각자 솔로로 나와도 되겠다"는 호평을 받았고, 장한나는 벨라니 피오나의 '기브 잇 투 미 라잇'을 매력적인 고음으로 열창해 합격을 이끌어냈다.

SBS '일요일이 좋다 – 서바이벌 오디션 K팝 스타 시즌3'에서 톱10에 진출한 버나드박

베다니아는 휘트니 휴스턴의 '아이 워너 댄스 위드 섬바디'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으며, 썸띵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다. 남영주는 실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가까스로 합격했다.

브로디·피터한·한현재(이재림·이채연)·이채영 등 화제를 모은 참가자들은 탈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톱 10은 세 팀 중 1위를 한 팀은 다음 라운드 진출, 2위 팀은 재도전, 3위 팀은 탈락하는 룰에 따라 결정됐다. /박진현기자 tak0427@

"에픽하이, K-힙합 성장 원동력"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퓨즈TV가 에픽하이(사진)를 한국 힙합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퓨즈 TV는 21일(현지시간) 에픽하이의 데뷔와 활동과정을 조명하며 "에픽하이와 같은 힙합 유지션을 찾아보기 힘들다. 에픽하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K-팝을 들썩이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멤버 개개인이 어우러진 독특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기획사로

인해 결성된 가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인 팀"이라며 "그들은 K-팝 차트에서 성공을 거뒀고 한국 힙합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에픽하이는 2009년 미국에서 인기 힙합 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와 함께 투어를 돌았으며 2010년 발표한 앨범 '에필로그'로 미국 아이튠즈 힙합 앨범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퓨즈 TV는 2014년 특집 기획으로 '퓨즈 러브스 서울 프롬 케이팝 투 힙합'이라는 주제로 2NE1·빅뱅·탑·태양 등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차례로 소개해 왔다.

/유순호기자

창작가무극 '소서노' 공연

고구려와 백제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소서노가 가무극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예술단이 천안문화재단과 공동 제작한 창작 가무극 '소서노'(사진)가 다음달 24~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4월 5~12일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연인 주몽을 도와 고구려를 건국하고 아들 온조와 더불어 백제를 건국한 소서노의 이야기를 다룬다. 소서노를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픽션의 형식으로 재창조해 용맹한 전사이자 현명한 통치자의 면모를 갖춘 여자 영웅으로 그려낸다.

소서노 역에는 '미녀와 야수' '조로' '레미제라블' 등에 출연한 서울예술단 출신의 조정은이 발탁됐다. 주몽 역은 '윤동주 달을 쏘다' '쓰릴미' 김종욱 찾기'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예술단 단원 박영수가 맡았다. 문의 523-0986

/이진형기자

호주 유명 모델 도슨 사망

호주의 유명 모델이자 호주판 '넥스트 톱 모델'의 진행자인 샬럿 도슨(사진)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미국 뉴욕타임즈 온라인판은 22일(현지시간) "도슨이 이날 오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도슨은 최근 아파트를 내놨고, 이날 오전 이 집을 둘러보기 위해 들른 부동산 업자가 숨져있는 도슨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주변 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도슨은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자살을 시도해 시드니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슨의 측근은 도슨이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날 평소와 다름없이 TV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했고 친구와 점심을 먹고 쾌활한 활영을 했다고 증언해 타살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슨의 사망 소식에 도슨의 오랜 친구인 러셀 크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없다. 도슨처럼 착한 사람은 없었다. 편히 잠들길"이라는 글을 올리며 비통해했다.

/이진형기자

우리별 일호가 얼룩소

이네스트와 셀레스틴

어디아와 얼음왕국의 전설

어른도 사로잡을 애니 납시오

작품성 갖춘 국산 '우리별 일호' 프랑스산 '어네스트와…' 등 관객맞아

국내외 각양각색의 애니메이션들이 '제2의 겨울왕국'을 노린다. 1000만 관객을 눈 앞에 둔 '겨울왕국'의 뒤를 이어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함께 볼만한 작품성을 인정받은 애니메이션들이 봄 햇살을 맞아 속속 개봉해 눈길을 끈다.

20일 개봉한 국산 애니메이션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는 재기발랄한 단편들로 2008 SICAF 피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해 스타 애니메이터로 떠오른 장형윤 감독이 5년의 제작기간에 걸쳐 선보이는 장편 데뷔작이다.

마법으로 얼룩소로 변한 소년과 소녀의 모습으로 변한 인공위성 일호의 오랜담을 그린 작품으로 톱스타 유아인이 정유미와 함께 더빙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공위성이 사람이 된다는 신선한 소재와 한국적인 정서의 배경, 서정적인 OST가 돋보인다.

같은 날 개봉한 프랑스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은 디즈니의 '겨울왕국', 지브리의 '바람이 분다'와 함께 올해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오른 수작이다. 이 밖에 칸영화제 감독주간 쿼고 프랑스 영화상, LA영화비평가협회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세자르 영화제 애니메이션 대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주인공인 곰 어네스트와 쥐 셀레스틴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친구가 돼가는 과정을 수채화풍의 그림체로 감동적으로 그렸다. 현대 계급 사회의 부조리와 편견을 꼬집는 메시지로 아이뿐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

27일 개봉 예정인 '어디아와 얼음왕국의 전설'은 '슈렉'과 '마다가스카' 제작진이 참여한 기대작이다. 위기에 빠진 북극을 구하기 위해 전설의 땅을 찾아 떠나는 세 친구의 모험담이다. 실감나는 화면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북극의 풍경이 아이뿐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어디아와…'와 같은 날 개봉하는 '닐스의 모험'은 1909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셀마 라게를뢰프의 명작소설이 원작이다. 공각기동대'의 오시이 마모루 감독이 1982년에 만든 애니메이션을 2009년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복원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다.

동물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닐스가 마법에 걸려 15cm 소인으로 변한 후 벌어지는 이야기다.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주고, 어릴 적 본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는 30~40대 관객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시즌2로 돌아온 스릴러뮤지컬 '셜록 홈즈'

스릴러 뮤지컬 '셜록 홈즈'가 시즌 2로 돌아온다.

'셜록 홈즈2: 블러디 게임'이 다음달 1일 BBC아트센터 BBC아트홀에서 개막한다. 세기의 살인마 '잭 더 리퍼'를 쫓는 천재 탐정 셜록 홈즈의 숨막히는 추격을 생생한 긴장감과 매혹적인 스토리로 그려낸 작품이다.

시즌 1인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의 흥행을 이끌었던 송용진·김도현이 다시 셜록 역을 연기하며, 윤형렬이 셜은 좋는 경찰 클라이브 역을 맡는다. 이 밖에 이영미·이주광 등 실력파 배우들이 참여한다.

뮤지컬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 캐릭터는 그대로 살리고 시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이는 시즌제 뮤지컬이다. 시즌 1은 뮤지컬 시상식에서 11개 트로피 석권, 좌석점유율 95% 기록, 3차례 앵코르의 흥행을 기록했다. 문의 1577-3363 /이진형기자

뮤지컬 '셜록홈즈2 블러디 게임'의 송용진, 김도현, 윤형렬

박스오피스 1위 차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과 한국 영화 '수상한 그녀'가 양분됐던 극장가의 판도가 변화를 맞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폼페이: 최후의 날'(이하 폼페이·사진)이 개봉 3일째인 22일 하루 동안 18만9273명의 관객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는 36만9명이다.

2위는 '폼페이'와 같은 날인 20일 개봉한 한국영화 '씨라시 위험한 소문'이 17만2842명을 모아 차지했다. 개봉 당일과 다음날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지만 3일째에는 '폼페이'와 근소한 차이로 뒤처지며 1위를 내줬다.

반면 각각 700만 관객을 넘고 1000만 관객 돌파를 눈 앞에 둔 '수상한 그녀'와 '겨울왕국'은 흥행 속도가 주춤해지며 3위와 4위로 내려앉았다.

/탁진현기자

4만7000원

임경선의 모놀로그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따금 감정이입 할 때마다 이 곳 저 곳에 기부를 했다. 보통은 기부할 때 슬프디 안 됐다, 미안하다 등의 죄책감이나 기부대상이 불행에서 구제되길 바라는 간절함 같은 감정으로 비롯한 행동이었다. 한데 이번에 동참한 기부는 사뭇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름다운 재단이 주최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은 47억원이라는 손배소와 가압류를 판결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금캠페인이었다. 47억원이라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막막한 돈이니 한숨부터 나올 성 싶다. 한데 어떤 사람이 지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았다. 47억원이면 그저 엄두가 안 나지만 계산해보면 그 돈은 4만7000원씩 10만 명이 힘을 합하면 되는 그런 액수이기도 했다.

사실 4만7000원이라는 액수는 1만원, 5만원, 10만원이라는 액수에 익숙한 우리에겐 뜬금없는 숫자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특수함 때문에 '현실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 아이엄마에게 그것은 아이 학원비를 아껴 보낸 4만7000원이었고 내게는 장바구니를 한 주 실량을 줄여서 보낸 4만7000원이었다.

그 와중에 가수 이효리씨가 꾹꾹 4만7000원을 동봉한 친필편지를 아름다운 재단 측에 보내왔다. 사실 내가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효리씨의 영향이 컸다. 평소 선행을 많이 하는 유명인들은 1000만원이나 억 단위로 척척 기부하지 않던가.

이효리씨가 만일 거액을 기부했다면 와,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오히려 '내 일'처럼 느끼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한데 이효리씨가 달랑(?) 4만7000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로 내 일 처럼 느껴지며 아, 나도 같이 연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 수 있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제하는 형식의 시혜성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훌륭하지만 나는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평등하게 조금만 같이 애쓰면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법한 목적을 향해 집중적으로 연대하는 쪽이 더 멋져 보이고 좋다. /칼럼니스트

날씨

2/24月 해뜨는 시각 07:11 해지는 시각 18: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co.kr

지역	기온
서울	[illegible]
청주	-1/11
대전	-2/12
전주	-2/13
광주	-1/13
제주	4/13
강릉	-3/7
울릉도	1/6
대구	2/14
포항	2/13
울산	2/14
부산	3/14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은 높아지고 체내 혈액의 점성은 증가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계절증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illegible]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3	5				9	
8			4	3		5	7	1
				7	8	2		
			1	6	2			
		9	3	4				
3	7	8		2	4			9
	4				3	6		
2								7

	3	1	2	4	6			
		5	9				4	
	8		1					
		8	5				9	7
			4		9			
9	2				7	3		
					1		6	
	1				4	5		
			6	5	2	7	1	

스도쿠 정답

[illegible]

[illegible]

문제 제공 [illegible]
현사 스도쿠 [illegibl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6877
www.ssaju006.com

변변한 직업 없는 동생 걱정 보석 다루는 직종이 좋을 듯

백두산산 여자 67년 6월 25일 음력 오전 3시

Q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행로에 대한 힌트를 해주시니 저 역시 어려울 때 마다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동생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이직이 잦고 마땅한 기술도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지요.

A 경금(庚金) 일간이 오월에 태어났으니 정관(正官)이 근본이며 바탕이 된 사람으로 법을 준수하고 온당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임에도 의협심이 강하군요. 그러나 인수(印)를 나를 생해주는 오행)가 중첩되어 자유롭지 않습니다. 편재(偏財)운이 자유 상승 기운을 갖고 있으므로 보석(石)계통으로 진로를 정해보세요. 음욕살(陰慾殺) 기질이 있으므로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매력이 있습니다. 삼재의 해가 되므로 만사에 조심하고 먼 곳으로 눈을 돌리면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일지에 육(肉)이 있으니 건전한 정신에 자비(慈悲)가 합니다. 도둑질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우라고 한 것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7월과 11월에는 운전에 유의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사 되면 인생 팔까 수년 내 유산받아 대박날 사주

hyrin 여자 72년 2월 1일 음력 오전 8시

Q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일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보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직장과 직업을 옮겨봤지만 '이거다'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A 독선적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관견재(傷官見財)의 형태로 사업의 변동이 많고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월의하도 타인을 칠 수 있어서 형(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40대 후반까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겠으나 을목(乙木)사주가 묘월(卯月)에 태어났으며 지지에서 무리를 이루는데 목국(木局)에 있어 매우 신강합니다. 귀하의 수호신이 매우 유정(有情)하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하는 오행이 원활하고 주류무체(周流無滯)하니 좋은 사주입니다. 47세가 되면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아 대박이 날 수 있으므로 조상 제사를 잘 모시고 종중어르신들에게 잘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 24일 음 1월 2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가정사에 막힘이 없다. **60년생** 아랫사람과 얼끄러운 것은 논하지 말라. **72년생** 지름길이라고 다 빠른 것은 아니다. **84년생** 박수가 터질 때 더욱 겸손할 것.

(소) **49년생** 관절과 관련 병 조심할 것. **61년생** 무거운 짐이 생기나 기쁘다. **73년생** 사람문제는 균형감각 잃지 않도록 신경 써라. **85년생** 사랑에 취해 모든 게 행복하다.

(호랑이) **50년생** 나서면 지출만 늘어난다. **62년생** 뛰기 좋아하는 거 가까운 곳서 찾아라. **74년생** 오늘만은 욕심이 많으면 얻는 것도 많다. **86년생** 의견 엇갈리는 상사 때문 고민.

(토끼) **51년생** 소일거리가 생겨 좋은 하루. **63년생** 배우자 만소리에 웃는다. **75년생** 인연이 없는 일로 헛고생 말라. **87년생** 이색 스펙 때문에 조직의 주목을 받는다.

(용) **52년생** 생각도 못한 불청객이 온다. **64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나 잡아라. **76년생** 메마른 대지에 새싹이 돋는 격이다. **88년생** 큰 뜻을 이루려면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 말라.

(뱀) **53년생** 자녀 일은 인내할 것. **65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 **77년생** 성공의 동아줄도 잘 골라잡아라. **89년생** 희망은 가난한 사람의 빵과 같은 것이다.

(말) **42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54년생** 오래로 끄던 일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66년생** 마음을 비우면 기적 같은 행운도 따른다. **78년생** 진로문제로 생각이 많은 하루.

(양) **43년생** 돈이 오가는 일인 관여 말라. **55년생**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67년생** 주는 것 없이 미운 동료 때문에 부글부글. **79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원숭이) **44년생** 심심할 정도로 무탈하다. **56년생** 욕심을 버리니 만사가 편안. **68년생** 호랑이가 숲에서 나온 격이다. **80년생** 눈치가 좋아 결심한 일 진행해도 무방.

(닭) **45년생** 배우자 앞에서 강경 말 디스러라. **57년생** 배우자 위로에 심신이 편안하다. **69년생** 어려움은 누구나 있으니 두려워 말라. **81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즐겁다.

(개) **46년생** 욕심 부리면 근심만 생긴다. **58년생** 파트너가 교차하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 **70년생** 욕심을 부리면 횡몽을 부른다. **82년생** 원하는 일은 이뤄지니 기대해라.

(돼지) **47년생** 힘든 일은 자녀에게 맡겨라. **59년생**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는다. **71년생** 주변 사람의 충고는 건성할 것. **[illegible]년생** 자만심만 버리면 만사가 순탄해진다.

metro sochi

한국 3회연속 톱10 실패…그러나 희망 봤다

남자 팀추월서 은메달 '빙속 자존심' 지켜 · 메달 8개로 대회 마무리

한국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악에 가까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지었다.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썰매·바이애슬론·봅슬레이·컬링·아이스하키 루지 등 6개 종목에 걸쳐 71명의 태극전사는 폐막 하루 전인 22일(현지시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의 은메달을 보태며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대회를 마쳤다.

역대 겨울올림픽 사상 최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해 3회 연속 종합순위 톱 10 진입을 노렸지만 메달 유력 종목에서 잇따라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거두며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이상화(서울시청)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 박승희(화성시청)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와 1000m에서 정상에 올라 우리 선수 중 유일하게 2관왕이 됐다.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세화여고)는 계주 금메달 외에도 1500m 은메달과 1000m 동메달을 수확했다.

2연패를 노리며 현역 마지막 무대에 선 김연아는 깔끔한 연기를 펼치고도 판정 논란 속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7위에 올랐고,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차지했다.

1948년 생모리츠 대회에 겨울올림픽 사상 처음 출전한 한국이 첫 메달을 딴 1992년 알베르빌 대회(10위) 이후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때는 금메달과 은메달 두 개씩을 따는 데 그쳐 14위에 머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금3, 은4, 동2)이 12위에 올라 있어 한국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아시아 국가 1위 자리도 내주게 됐다.

◆ 세계인 시선은 평창으로

17일간의 지구촌 스포츠 축제가 끝나면서 세계인들의 시선은 다음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으로 향하게 됐다. 23일 폐회식에는 아나톨리 파호모프 소치 시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인수받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이석래 평창군수에게 다시 대회기를 전달하면서 평창 시대를 열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철민, 이승훈, 주형준(왼쪽부터)이 23일 러시아 소치 마을레르의 코리아하우스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 조직위원회는 폐막식에서 '동행'을 주제로 인수 문화공연을 8분간 선보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연출자인 윤호진 감독이 총감독을 맡고, 성악가 조수미, 재즈 가수 나윤선, 가수 이승철, 가야금 연주자 이종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캐나다, 스웨덴 누르고 아이스하키 '금' 캐나다와 스웨덴이 23일 러시아 소치의 볼쇼이 아이스돔에서 열린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캐나다는 1피리어드와 2피리어드에 조나단 테이스와 시드니 크로스비가 한 골씩 넣어 스웨덴을 2-0으로 물리치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마지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P 뉴시스

봅슬레이 日 밀어내고 '亞 최강'

한국 봅슬레이가 남자 4인승에서 두 대회 연속 올림픽 결선 4차 레이스에 올랐다.

원윤종(29·경기연맹), 석영진(24), 전정린(25·이상 강원도청), 서영우(23·경기연맹)로 구성된 봅슬레이 4인승 A팀은 23일 러시아 소치의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4인승에서 1~4차 레이스 합계 3분44초22의 기록으로 20위를 차지했다.

첫 올림픽이던 2010 밴쿠버 대회에서 기록한 19위(남자 4인승)보다는 성적이 떨어졌지만 2인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4인승에서도 두 대회 연속으로 결선 4차 레이스에 오른 성과를 냈다. 봅슬레이는 세 차례 레이스 합산 기록으로 상위 20팀에게 4차 레이스 출전권을 준다.

한국은 역사가 오래된 일본을 26위로 밀어내며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한편 금메달은 알렉산더 주브코프 등이 출전한 러시아 A팀(3분40초60)이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국가별 메달 순 <23일 오후 11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러시아	13	11	9
2	노르웨이	11	5	10
3	캐나다	10	10	5
4	미국	9	7	12
5	네덜란드	8	7	9
6	독일	8	6	5
7	스위스	6	3	2
13	대한민국	3	3	2

3관왕 안현수 '화려한 부활'

소치에 뜬 별·진 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어김 없이 올림픽 영웅이 탄생하며 감동과 환희를 안겼다.

가장 주목받은 스타 중 한 명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사진)다. 쇼트트랙 남자 500m와 1000m,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쓸어담으며 이번 대회 최다관왕이 됐다. 1500m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데 이어 역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쇼트트랙에서 두 차례 3관왕을 차지했다. 금메달 수(6개)와 총 메달 수(8개)에서도 남녀 선수를 통틀어 최다를 기록하며 쇼트트랙 역사에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바이애슬론 여자부에 출전한 벨라루스의 다르야 돔라체바가 금메달 3개로 안현수와 함께 최다관왕에 올랐다. 돔라체바는 10㎞ 추적과 개인 15㎞, 12.5㎞ 단체출발에서 정상에 올랐다. 밴쿠버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였던 마리트 비외르겐(34·노르웨이)도 3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크로스컨트리 여제의 위상을 높였다.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영웅 올레 에이나르 뵈르달렌(40)은 혼성 계주와 남자 스프린트 10㎞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월을 거스르는 늙지 않는 힘을 과시했다. 그는 동계올림픽에서 총 13개의 메달(금 8, 은 4, 동 1)을 목에 걸며 최다 신기록을 세웠다.

반면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스타들도 있다. 스노보드계의 절대 강자인 미국의 숀 화이트(28)는 노메달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주종목인 하프파이프에서 그는 신기술을 들고 나온 스위스의 유리 포드라드치코프에게 우승을 내줬다.

올림픽 2연패는 물론 지난 10년간 황제로 불려왔던 화이트는 '영원한 1위는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고 쓸쓸하게 이번 대회를 마쳤다.

토리노와 밴쿠버에서 모두 1000m 금메달, 15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샤니 데이비스(32)는 소치에서 시상대 근처도 못 가봤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그는 1000m 8위, 1500m 11위로 부진했다.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체가 30년 만에 메달을 단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역사적 부진을 겪었다.

/유순호기자 suno@

원더풀 연아…"그대가 영원한 여왕"

갈라쇼서 '이매진'으로 아름다운 고별무대-감동 선사
소치에 평화 메시지 전해 … "현역생활 끝내니 홀가분"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현역 선수로서 은반과 작별했다.

김연아는 23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수상자들의 갈라쇼에서 에이브릴 라빈의 '이매진' 선율에 맞춰 우아한 연기를 선사했다.

'이매진'은 존 레넌이 1971년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의 메시지를 담아 발표한 곡으로 대회 전부터 테러 위협에 시달렸던 소치의 상황과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주인공인 엘사 공주의 푸른 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푸른 빛깔의 의상을 입고 등장한 김연아는 완벽한 연기로 관중들의 환호와 탄성을 자아냈다.

평화를 갈구하는 노랫말에 맞춰 김연아는 크게 뻗은 두 팔을 가슴으로 끌어모아 기도하듯 애절한 표정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프리스케이팅에서 문제가 된 편파 판정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었지만 김연아는 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듯한 진정한 챔피언다운 의연한 연기로 감동을 선사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을 담당했던 김연아는 이날 갈라쇼에서도 홍보에 앞장섰다. 모든 선수가 참가하는 피날레 무대에서 김연아는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 옆으로 소치올림픽 로고와 함께 평창올림픽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김연아는 갈라쇼가 끝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판정 논란과 관련해 "나보다 주변에서 더 속상해하는 것 같다. 결과가 어찌 됐든 경기가 잘 끝났다는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결과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억울하거나 속상한 마음은 없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스케이팅 후 백스테이지에서 눈물을 흘린 것도 판정과는 무관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역 선수 생활을 완전히 끝낸 그는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다. 한국에서도 또 공연을 할 것이기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피겨여왕' 김연아가 23일 오전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 아쉬운 준우승

박인비(25·KB금융그룹·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우승을 아쉽게 놓쳤다.

박인비는 23일 태국 촌부리의 시암 골프장에서 열린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 마지막날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몰아쳤지만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박인비는 선두 노르드크비스트보다 4타 뒤진 공동 2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해 초반 격차를 좁혔지만, 후반 들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며 결국 선두에 2타 뒤진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그러나 박인비는 세계랭킹 2위인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8언더파 280타로 10위에 머물러 세계랭킹 1위 자리는 지켰다.

재미동포 미셸 위(24)도 노르드크비스트, 박인비와 같은 조에서 선전했지만 4위(10언더파 278타)에 머물렀다. /유순호기자

박지성 풀타임-팀 4연승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에인트호번의 박지성(33·사진)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연승행진을 이끌었다.

박지성은 23일 네덜란드 데이에펜의 포케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에레디비지에 25라운드 네어메이연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 승리를 도왔다. 그는 9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자 3경기 연속 풀타임 행진도 이어갔다. 에인트호번은 리그 4연승을 거두며 12승5무8패(승점 41)로 5위를 유지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멤피스 데파이와 예트로 빌렘스의 슈팅으로 기선을 제압한 에인트호번은 후반 들어 2골을 몰아쳐 승리를 결정했다. 브라이언 루이스가 아리아스의 패스를 받아 후반 11분 골을 터뜨려 선제 득점을 올렸고 후반 37분에는 데파이가 중거리포로 쐐기골을 뽑아냈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3일

LG	24	25	14	17	80
오리온스	13	15	10	21	59
전자랜드	20	25	17	18	80
인삼공사	17	20	17	15	69
KT	17	13	12	16	62
모비스	18	23	24	16	84
신한은행	17	10	16	23	68
국민은행	21	12	19	15	67

프로배구 전적 23일

삼성화재	3	1	대한항공
인삼공사	3	1	흥국생명
GS칼텍스	3	0	기업은행

심석희·박소연…"4년 뒤엔 우리가 스타"

평창 동계올림픽 기대주

3연속 톱 10 달성에 실패한 한국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훌륭한 기대주들을 대거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을 거뒀다.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확실한 희망을 발견한 대회 스타가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17·세화여고)다. 3관왕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심석희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인 금(3000m 계주)·은(1500m)·동메달(1000m)을 하나씩 목에 걸었다.

3000m 계주 결승에서 팀의 에이스로 마지막 레이스를 책임지며 역전 드라마를 쓴 그는 전 세계 팬들은 물론 경쟁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1500m 결승에서는 중국의 저우양에게 다잡은 금메달을 내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향후 10년 이상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전성기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심석희와 함께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김아랑(19·전주제일고)과 공상정(18·유봉여고) 등 무서운 10대들의 질주는 평창에서 정상에 오를 전망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뒤를 이을 김해진(17·과천고)과 박소연(17·신목고)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평창의 또 다른 재미다.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들은 쇼트프로그램에서 24위에 들어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하는 등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스켈레톤의 윤성빈(20·한국체대)은 선수 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썰매 종목 역사상 최고 성적인 16위를 기록하며 홈그라운드인 평창에서의 성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대회에서 성적을 떠나 가장 큰 관심과 응원을 받은 종목이 컬링이다. 스킵 김지선(27)을 중심으로 이슬비(26)·신미성(36)·김은지(24)·엄민지(23·이상 경기도청)는 세계랭킹이 가장 낮은 10위임에도 3승 5패를 거두며 세계 강호들을 위협했다.

이 외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 종목의 김보름(21·한국체대), 남자 모굴스키의 최재우(20·한국체대) 등도 평창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유순호기자

쇼트트랙의 심석희, 여자 컬링 대표팀, 피겨스케이팅의 박소연(왼쪽부터)이 이번 올림픽에서 활약을 보이며 평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연합뉴스